

# 여유·건강·문화가 흐르는 新영산강 시대 '활짝'

답양 용소에서 비롯돼 목포 강어귀까지 남도들녘 350리 길을 굽이쳐 흐르는 영산강. 고대에는 마한문화를 끽과운 '문명의 강' 이었고, 1970년대 까지만해도 배들이 영산포 까지 오르내리는 '생활의 강'이었다. 하지만 산업의 발달에 따라 강은 점차 오염되고 잊혀졌다.

그동안 흥수와 수질오염을 걱정해야 했던 영산강이 여가문화를 즐기는 새로운 강 문화를 창조하고, 도시민들의 발길을 이끄는 수변 생태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했다.

◇자동차로 달려볼 수 있는 승촌보=영산강 살리기 사업은 총사업비 2조8000억원을 투입해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퇴적토 준설 2454만m<sup>3</sup>(남산의 절반 해당) ▲디카보 보 2개소(승촌보·죽산보) 설치 ▲ 수변 생태공간 70개소 조성 ▲당양댐~하구 언덕 자전거길 총 224km(종주노선 132km·내안노선 92km) ▲홍수조절지 2개소·강변 저류지 1개소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흥수 조절능력 1억2000m<sup>3</sup>, 응수수보량 1억1000m<sup>3</sup> 증대로 가뭄과 홍수를 예방하고, 수질을 2등급 이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 남구 승촌동에 위치한 승촌보는 ▲보 길이 512m(기동보 176m·교정보 336m) ▲답수능력 970만m<sup>3</sup> 규모로 나주평야 쌀알을 형상화한 디자인이 돋보인다. 특히 연간 464만300kWh 발전 능력을 가진 소수력

## 12일 승촌보에 '영산강문화관' 개관 전시홀·북카페 등 새 여가문화 즐겨 온가족 종이배에 소망띄우기 체험도

발전시설이 함께 설치됐다. 전국 4대 강에 설치된 16개보 가운데 유일하게 자동차로 달려볼 수 있다.

나주시 다시면 죽산리에 자리한 죽산보는 ▲보 길이 184m ▲답수능력 2500만m<sup>3</sup> 규모로 '굽이치는 영산강의 힘찬 물결'을 모티브로 디자인됐으며, 4대강보 가운데 유일하게 '배나들이 문'을 설치, 막혔던 뱃길을 34년 만에 복원했다.

◇영산강·도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12일 오후 3시 광주시 남구 승촌보에서 '영산강문화관' 개관식을 갖는다. 한강·강천보·금강·백제보'에 이은 3번째 물문화관 공식 개관이�다.

연면적 3426m<sup>2</sup>에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1층과 2층은 전시공간(면적 1393m<sup>2</sup>), 3층은 다목적 회의실과 전망공간으로 이뤄졌다.

우선 물문화관 입구에 들어서면 양 벽면에 종이배 1000여개가 진열된 '희망 나눔존'이 눈길을 끈다. 탐방객이 종이배에 소망의 메시지를 적으면 나중에 이를 모아 복지재단에 기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1층 프롤로그에는 각각적 연출의 CF와 템비디오로 유명한 차은택 감독의 영상을 만날 수 있다. '강, 물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5분여 동안 빗방울이 강이 되고, 바다가 되고, 다시 도시가 되는 순환과정을 수복화 분위기의 영상으로 보여준다. '강, 사람의 이야기'는 조약돌 형상의 의자에 앉아 강과 함께 발전하고 살아온 인류의 모습을 표현한 영상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강, 행복의 이야기'는 55인치 미디어 테이블을 이용해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한다. 임어가 노리는 연못을 손끝으로 건들면 모니터 상의 물결과 임어의 반응이 실제 와 흡사해 '스마트 시대'에 맞춘 아이템으

로 탐방객들의 높은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

◇물과 함께 한 인류 역사=영산강문화관 관람시 편란드 출신 세계적인 설치미술 작가인 유시 엔제스레비(jussi angesleva·독일 베를린예술대학 교수)의 미디어 작품 '강은(River is)'은 꼭 행거 봄이한다. 수천, 수만 개의 강이 결국 한곳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데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물의 물결을 연상시킨 작품공간 속에서 빛을 이용해 관람객 자신들만의 강의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작가는 작품의도에 대해 "방문객들에게 강가에서 보트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깨끗한 환경, 탁 트인 물, 건강한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 승촌보를 찾은 강성현(59·광주시 북구)씨는 "4대강 현장에 처음 왔는데 생각보다 잘 돼 있다. 몇년 지나 나무들이 자라면 더 좋아질 듯싶다. 영산강 황포돛배도 한번 타보고 싶다"고 말했다.

영산강문화관 김창호(41)관장은 "문화관 전체의 컨셉은 강을 통해서 자연생태를 체험하고, 지역민과 소통하겠다는 '소통과 체험'"이라면서 "살아 숨 쉬고, 도시민·주민과 함께 하는 복합 문화공간, 지역 중심의 문화관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오는 12일 문을 여는 '영산강문화관' 1층 전시공간. '강, 사람의 이야기' 코너는 강과 함께 살아온 인류의 모습을 64인치 모니터로 감상할 수 있다.

## "홍수 조절 완벽한 승촌·죽산보 기대"

### 신송운 K-water 전남본부장



“이산국토관리청이 시행한 다기능 보 설치와 자전거 길 조성 등 주요 공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앞으로 승촌보와 죽산보를 완벽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부터 승촌보·죽산보 운영을 개시한 신송운 K-water(한국수자원공사) 전남지역본부장은 “현재 건설업체와 함께 중앙 조정실(ICT) 작업을 통해 수문이 제대로 열리지는지, 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종합 시운전을 하고 있다”며 “운영 첫해인 만큼 홍수기 예보를 상황에 맞게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시뮬레이션하며 완벽한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 본부장은 “영산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승촌보 900만t, 죽산보 2700만t 등 총 3600만t의 수량을 추가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관리수위를 승촌보 7.5m, 죽산보 3.5m로 유지함으로써 과거 건천화(乾川化) 되다시피한 영산강을 활시 활랑찰랑 흐르게 바꾸고, 수변공간을 잘 조성해 도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또 신 본부장은 “인천 국제공항과 KTX 사업은 반대를 무릅쓰고 여기까지 왔지만 큰 흐름 속에서 보면 ‘옳았다’”면서 “4대강 사업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시 남구 승촌동에 위치한 '승촌보'. 나주평야의 쌀알을 형상화 했으며, 전국 16개 보중에서 디자인 컨셉트가 가장 우수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수력발전소와 물고기 이동통로인 어도도 함께 설치돼 있다.

NAVER 광주경영지총협회 검색  
www.gjef.or.kr

**2012년 가전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구인난 해소와 실업자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합니다.**

**100% 맞춤형 취업 보장**

**가전산업 맞춤형 기능양성 과정 2기 교육생 모집**

**무료**

**★ 가전산업 맞춤형 기능양성 과정**

훈련 기간	훈련내용	훈련시간	인원	훈련 장소
5월29일 ~ 7월24일 (8주)	직업인 소양교육 이론 및 현장교육	09:00 ~ 15:20 주 5일, 1일 6시간 총 240H	30명	- 하남근로자 종합복지관 내 교육장 - 한국폴리텍 V대학 1캠퍼스

**근무처 :** 가전산업 대기업 협력업체 중심 유망중소기업 및 기타 제조사

**근무지역 :** 하남, 첨단, 평동산업단지 등

**지원자격 :** 실업자(만 19세 이상 ~ 60세 미만 남·여)  
주부, 대학졸업예정자 등 취업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분 누구나 가능

**구비서류 :** 이력서, 사진 2매, 통장사본(신한은행), 신분증 사본

**신청방법 :** 방문 및 광주경총 홈페이지([www.gjef.or.kr](http://www.gjef.or.kr)) 온라인 접수

**★ 훈련생 혜택**

- 교육생 맞춤형 취업처 제공
- 매월 훈련수당 지급
- 훈련비 / 교재비 전액무료
- 기업체 맞춤형 전문교육 실시

**★ 본 훈련은 고용노동부 및 광주광역시 시·도간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빛고을 HRD센터**  
하남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상담 및 문의 Tel. 961-6366/6377**

## 무등빌딩임대

무등산이 보이는 최상의 조망권,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한 편리한 교통권,  
금융지역, 상업지역이 함께 어울려져있는 업무의 편의성,  
신형 주차시설 완비 · 중앙 공급식 냉 · 난방시설,  
쾌적한 업무 환경

• 면적 : 330평 / 층 (분할임대 가능)  
• 용도 : 사무실, 판매시설

문화 전당역

임대문의 062-222-0527